

농촌유학생들, 도내 학교로 첫 등교

입실 11명·진안 8명·완주 4명·순창 4명이 등교 서거석 교육감 “전북으로 온 농촌유학생·가족들 환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완주·진안·입실·순창 등 4개 지역에서 서울학생들의 전북학교로의 등교가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유학 협력학교는 지사초, 대리초, 동상초, 운주초, 동산초, 조립초 6개교며, 전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은 총 27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40여명이다.

지역별로는 입실 11명·진안 8명·완주 4명·순창 4명이며,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17명, 센터형 6명, 홈스테이형은 4명 등 총 27명이다.

전북 농촌유학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

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8월 31일 서울교육청-전북도청-재경전북도민화 4자간 농촌유학 업무협약을 체결, 장기적으로는 유학생과 가족의 귀농귀촌 형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유학생 모집과 배정 및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유학생의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전북농촌유학 홍보 및 유학생 모집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전북도민화에서는 고향사랑 농촌유학생 모집활동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전북 농촌유학은 서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월 시범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전국 도시지역 초·중학생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농촌유학에



입실 지사초등학교로 유학온 서울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즐기고 있다.

참여한 유학생과 가족들 모두 환영한다”면서 “재학생과 유학생들이 즐겁게 어울리고,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유학생과 가족들 모두 환영한다”면서 “재학생과 유학생들이 즐겁게 어울리고,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 학부모 대상 특성화·마이스터고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5일 저녁 7시 2층 강당에서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배, 2023 학부모와 만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와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맞춤형 직업교육 등 특화된 교육 과정을 안내해 신입생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설명회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계열별·전공별 특징,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안내와 함께 특성화고 졸업생과 학부모 강연, 마이스터고 학교별 상담과 농업·공업·상업·가사계열 개별 상담 등도 준비해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은 “도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학생들에게는 진학에 도움이 되고 직업계고에는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4일 익산시 왕궁 포레스트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전북교육의 새 길’이라는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감과 함께 전북교육의 새 길 걷다’

서거석 교육감,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과 간담회 청렴·민주 공동체 의식·인권·학력신장 등 소개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익산시 왕궁 포레스트에서 서 교육감과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전북교육의 새 길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노조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특강을 통해 △The(더) 청렴 △민주 공동체 의식 △균형잡힌 인권 △학력신장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소개했다.

특히 기초·기본학력 신장 농촌유학 등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들도 소개했다.

한편 특강 후 진행된 공감토크 시간에는 취임 100일 소회를 피력하는 등 공무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는 취임 100일을 앞둔 서

교육감이 교육철학과 비전을 공무원들과 공유하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교육감님 특강과 대화를 통해 달라지는 전북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꼭 이루겠다”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22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 과학캠프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2일 전남 곡성 동악산 치유의 숲에서 2022년 모두가 함께하는 학생과 과학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심의 숲 생태탐사’라는 주제로 자연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협력하면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급 학생과 지도교사(또는 학부모) 40명 내외,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0명 내외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모듬을 구성해 진행된다.

이날 학생들은 △숲자기와 함께하는 치유의 숲 생태탐사 △단감 따기 및 두부·콩비지 도넛 만들기 △고무 동력용 이용한 비행기 만들기 △지구구조 열쇠고리 만들기 △케플러식 망원경 만들기 △과학 퀴즈를 통한 보물찾기 등 자연친화적 과학체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자에게는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7일까지며,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양식을 내려 받아 온라인 설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참가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오는 12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저탄소 채식 급식’ 인식, 보다 널리 확산

도교육청,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 작품 전시회... 25일까지 창조나라에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시상 작품을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창조나라(별관)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그림일기, 포스터, 슬로건(예쁜 손글씨체), 캠페인 사진 등 공모전의 4개 분야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학교급식과 저탄소 채식 급식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비탄적 식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보호 차원의 교육급식 실천 등 교육주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공모전 수상작에는 △건강한 나를 위한 영양급식 △지구환경을



전북도교육청은 2022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시상 작품을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생각하는 생태급식 △모두 함께 하는 행복급식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안진급식 등의 주제로 분야별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 등 총 80점이 선정됐다.

한편 수상 작품은 전시회와 작품

집 등으로 선보일 뿐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며 올바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연구진, 비귀금속기반 소효율 수전해 촉매 개발

기존 귀금속 기반 촉매보다 저렴

이중희·김남훈 교수팀 촉매분야 저널 논문 게재



다슈람 파벨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다슈람 파벨 대학원생(박사과정·지도교수 이중희·김남훈)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수소’를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비귀금속 기반 고효율 수전해 촉매를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 연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나노에너지(Nano Energy)’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린수소의 생산은 물을 전기분해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수전해 반응 효율이 높은 촉매들이 백금이나 산화티타늄, 루테튬산화물과 같은 값비싼 귀금속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전해 설비 제작 단가가 비싸고 내구성까지 떨어져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데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북대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귀금속계 촉매를 대체한 고효율, 고내구성의 비귀금속기반 촉매 합성 기술을 제공해 저비용으로 그린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 기반을 마련한 것.

이에 초박형 나노채널을 형성한 코발트-이황화티스텐과 니켈 텔루라이드로 구성된 고다공성의 비인더가 필요 없는 금속 다갈코게나이트 기반의 고효율 고내구성의 이중구조 다차원 수전해 촉매를 개발했다. 개발된 촉매를 적용한

알카라인 수전해조 셀은 매우 우수한 수소생산 성능 및 내구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밝힌다.

기존 알칼라인 수전해 셀에 비해 수전해 효율이 높고 수전해 전압을 낮추는 데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연구진은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핵심 촉매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만금 지역의 그린수소 산업과 수소경제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대가 분야에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빨리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과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4일 전북도교육청 창조나라 시청각실에서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매니페스토 실천 초청 강의

공약 이행 역량 강화 위해...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감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한 공적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초청 강의를 실시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창조나라(별관) 시청각실에서 본청·과장·장학관 사무관 공약담당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직원들에게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원활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공약의 필요성 △공약 실천계획서 작성 요령 △공

약 이행평가지표와 평가방법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등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와 공약 이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강연해 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핵심사업이다. 각 분야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공약의 필요성 △공약 실천계획서 작성 요령 △공

전북교총 “도교육청의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완화 환영”

전북교총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완화정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0일 2023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기준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 편성 최대인원 기준은 만 3세반 14명, 만 4세반 18명, 만 5세반 20명으로 만3세반과 만4세반은 동결되고, 만5세반은 2명 감원됐다.

이에 전북교총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기준 인원

감소를 환영한다”며 “비록 작은 변화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기종 회장은 “사립유치원의 원아 허용 기준을 높게 편성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원비 전액을 누리과정보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방안 확립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확충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유치원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